



제40회 진안 정천면민의 날 행사 성황리 열려

제40회 진안 정천면민의 날 행사가 지난 8일 정천체육공원에서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는 비가 오는 곳도 날씨에도 각급 기관사회 단체 및 면민들이 한자리에 어우러져 화합을 다졌다. 기념식에서는 면민의 장 등에 고흥석(공익장), 염종열(효행장), 최홍근(애향장), 김영순(장수상), 김봉주(산업장)씨에게 면민의 장이 수여됐다. 또한 율령대 박희자 씨에게는 공로패가, 김선학 전 정천면장과 전 부면장 최성평, 전 맞춤형복지팀장 윤안순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노래교실 및 학생들의 켈레 공연 등은 그동안의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며 참석자들에게 연신 박수갈채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열린 면민 노래자랑은 참가한 선수뿐 아니라 모든 면민이 함께 어울려 그동안의 근심을 훌훌 털어버리는 즐거운 시간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행사에는 많은 가수들의 축하공연도 열려 더욱 풍성했다. 박동현 면장은 "정천면민들은 물론 정천면을 방문하신 내외빈분들이 즐겁게 웃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화합하고 소통해 행복한 정천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신풍동 복지공동체, 취약가구 LED 전등 교체

김제시 신풍동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공동체(대장 최임관)가 지난 7일 저소득층 2가구에 주거환경정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봉사활동은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사례 관리 대상으로 LED등, 세면대 배수관 교체, 부엌 수리 등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가구를 선정해 진행했다. 최임관 신풍동 복지공동체장은 "한동안 비워뒀던 집 곳곳을 수리하고, 즐거워하는 어르신들 보며 뿌듯함을 느낀다"며 "방충망 교체, 대청소, 안전바 설치 등 실생활에 꼭 필요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국형호 신풍동장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의 생활을 개선하는 신풍동 복지공동체 대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무주소방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무주소방서는 오는 6월 말까지 관내 화재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년~2023년) 도내에서 발생한 주택화재 건수의 경우 전체 화재 건수 대비 약 18.1%인 반면에 사망자는 약 52.8%로 발생 건수에 비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자력으로 구매와 설치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자 55가구를 선정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청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방안전시설인 시각경보형감지기와 촉지형 피난유도선을 가구별 방문하여 설치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시민축구단, 홈 최다연승 달성

전주시민축구단에 3대 0 완승... K4리그 홈 5연승 기록

전주시민축구단(이하 전주)의 상승세가 매섭다. 10일 전주에 따르면 지난 8일 전주대운동장에서 열린 '2024 K4리그' 12라운드 전주시민축구단과의 홈경기서 김현과 심요셉, 박배근의 연속골에 힘입어 3대 0 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전주는 K4리그 홈 5연승을 기록하면서 홈 최다연승을 달성했다. 현재 승점 22점(6승 4무 1패)으로 2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는 1위 대전하나시티즌과는 불과 1점 차다. 경기초반 전주는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방에서 김도형과 박배근, 김현, 심요셉, 신윤호가 득점 기회를 찾았고, 5분만에 첫 골이 나왔다. 신윤호가 상대 오른쪽 코너 부근에서 얻은 프리킥을 김현이 페널티박스 중앙에서 침착하게 밀어 넣었다. 전주는 이후에도 공격을 이어 갔고 전반 34분 추가골이 터졌다. 심요셉이 상대 골키퍼가 걸어진 공을 오른발로 슈팅을 시도, 골문을 갈랐다. 전반을 2대 0으로 앞선 채 마친 전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이어갔다. 이에 진주도 골을 넣기 위해 4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등 변화를 줬지



만, 전주 수비에 번번이 막혔다. 양 팀의 공방전에 진행되던 후반 27분 전주 박배근의 쐐기골이 나왔다. 상대 왼쪽 중앙에서 골키퍼가 나온 것을 보고 찬 공이 그대로 상대 골 망으로 빨려 들어갔다. 이후 전주는 수비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전주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3대 0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쳤다. 양영철 감독은 "이날 승리로 홈 5연승과 함께 선두권에 안착했다"면서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긁은 날씨에도 홈 경기장을 찾아준 서포터즈와 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은성 기자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성료

국내 축구 꿈나무들의 대잔치인 '2024년 진안홍삼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진안군체육회 주최,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 주관)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한 대회는 지난 7일~9일까지 3일간 진안 공설운동장과 용담, 상진, 주천면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대회는 출전 연령(학년 기준)에 따라 총 5개부(U-8, 9, 10, 11, 12)로 진행됐으며 80개 팀, 약 2,400여 명의 선수단과 가족이 참가하며 사흘간 열전을 벌였다. 대회 결과 종목별 우승은 전북현대(U-8), 애플린드(U-9, 진안리그), 진주FC(U-9,홍삼리그), 목포FC(U-10,진안리그), 상주갑돌FC(U-10,홍삼리그), 수원FC(U-11), 순천 나인티어 인FC(U-12,진안리그), 전북 풋볼아카데미(U-12,홍삼리그)가 차지했다. 페어플레이상은 진안FC(U-12), 송정서FC, 영음FC가 받았으며 심판상은 허하수, 장욱 심판에게 돌아갔다. 특히 대회는 참가 신청이 시간 만에 마감됐으며 주말 동안 비가 오는 와중에도 어린 축구 꿈나무들의 열정과 땀으로 경기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또한, 유소년 축구의 특성상 가족 단위 방문객이 많아 지역경제에도 활기가 돋았다. 전춘성 군수는 "한국축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유소년 축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지속 이뤄져야 한다. 하계 대회유치에 최적의 여건을 지향하는 진안군에서 다시금 유소년 축구대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내년에도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면 내실을 가지고 참가팀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대 정창규 교수, 국제학회서 '젊은 연구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정창규 교수(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가 '제7회 Nanogenerators and Piezotronics(이하 NGPT) 국제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NGPT는 나노발전기 및 압전소자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학회로, 재료공학 분야 전 세계 정량평가 1위 학자인 종린 왕 교수(미국 조지아 공과대학교)가 창립한 학회다. 이 대회는 격년으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미국 애플랜드, 서울, 중국 베이징, 이탈리아 로마, 영국 케임브리지, 스웨덴 스톡홀름 등에서 개최됐다. 이에 따르면 정창규 교수는 미국 매디슨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유전체, 압전체 및 강유전체 소재/응용 연구 분야에서의 성과를 기반으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정 교수가 수상한 젊은 연구자상은 후원 업체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졌으며, 40세 이하의 교수에게 매년 수여되고 있다. 정 교수는 유전체, 압전체 및 강유전체 소재/응용 연구 분야에서 인용 수 9,300회와 발표 논문이 얼마나 팔고투 인용되었는지를 보여주는 h-지수 49 등을 인정받아 이 상을 받았다. 미국 시카고대학교 시흥 왕 교수와 싱가포르 국립대



학교 창성 우 교수가 함께 수상했다. 지난해 한국세라믹학회와 한국전기전자재료학회에서 주요 학술상을 수상한 정 교수는 이번 수상으로 국제무대에서도 연구 성과들을 인정받게 됐다. 정창규 교수는 "아직 덜 익은 연구 실적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연구자들과 함께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2년 뒤 2026년 제8회 NGPT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만큼, 전북대에서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여러 교수님들을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농기센터-전남과학대, 업무협약 체결

남원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는 10일 센터에서, 전남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이진종)과 시 농업기술 교류 확대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추진한 센터 스마트 농업팀은 산학협력단과 남원 지역사회와 상호 공동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산학협력 프로그램 구축 △스마트농업 기술 R&D 추진 △창년 창업농 육성 및 지역인재 양성 △스마트팜 등 현장실습 중심교육 실현 등 여러 사항에서 인적·물적 교류 및 상호협력 및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인배 소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과 스마트팜 발전을 위해 상호간 정보교류 및 지원,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농업·농촌·식품산업의 전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농정비전과 목표를 발굴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금구면 복지공동체, 주거환경개선 봉사 펼쳐

김제시 금구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공동체(대장 이미향)가 10일 대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10세대에 여름철 방역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에서는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수급자 어르신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했으며, 여름맞이 모기 등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역 활동을 실시했다. 이미향 복지공동체장은 "많은 주민들을 위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신경 쓰겠다"며 "이후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앞장서 적극 봉사에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60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86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6-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944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692-6157
	군산지사 010-6789-0038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익산지사 858-9923	고창지사 563-6999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